

무대에서 예술적 표현이 에너지 효율과 환경정책에 우선하는가? 유럽의 텅스텐 할로겐 조명기 사용제한 법안의 쟁점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유럽연합의 조명시설 관련 신규 법안으로
약 2,700억 원을 지불해야 할 영국 극장들

최근 유럽 연합(EU)에서 현재 대부분의 극장에 설치된 기존 무대 조명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시하면서 영국 전역에 퍼져있는 연극 전용 소극장을 포함한 전체 극장들이 2020년까지 약 1억 8천만 파운드(약 2,700억 원)짜리의 영수증을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비용은 런던만 놓고 볼 때 약 3천 5백만 파운드(약 520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 극장이 사용하는 조명시설의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극장들이 아마도 이런 비용을 짧은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어 불을 꺼 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예상한다.

전 런던극장협회(SOLT, The Society of London Theatre) 회장이자 영국 공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극장주 니카 번즈(Nica Burns)와 연극 <워 호스(War Horse)>와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으로 토니와 올리비에 상을 받았던 조명디자이너 폴 콘스타블(Paule Constable)은 한목소리로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유럽전역의 극장주들과 공연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극장은 반드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현재 생산되어 사용 중인 대부분의 극장용 조명기구 판매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를 에너지 효율성이 낮음과 환경문제에 근거하고 있다.

런던의 공연전문지 더 스테이지(《The Stage》)는 최근 칼럼을 통해 이번 조치는 “최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많이 의존했던 국립극장 <War Horse> @Albert Narracott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은 텅스텐 할로겐 램프(Tungsten halogen lamps) 조명기구와 극장에서 많은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LED까지도 일부 포함된 방향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런던극장협회의 줄리안 버드(Julian Bird) 회장 역시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극장에 심각한 재정 악화와 창작자들(상업, 아마추어, 학교 공연단체를 모두 포함)의 예술적 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대 지원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영국 조명디자이너연합(ALD, The Association of Lighting Designers)은 단순히 극장 무대의 불을 밝히는 전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에 평균적인 사이즈의 극장들은 2020년까지 최소 14만 2천 파운드(약 2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에 없었던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고, 극장협회는 영국 전역의 약 1,300개가 넘는 극장들이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시 전체 예산은 3천 5백만 파운드(약 5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작은 극장들은 앞으로 가로등 아래서 작품을 선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표현들이 등장하

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최초 2009년 텡스텐 할로겐 조명기기들이 가정용으로 판매 및 사용되는 것을 법률로써 금지했고 다만 극장 사용만은 열어둔 데서 출발했다. 그 결정은 조명기기 제조사의 향후 생산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에도 조명디자이너들은 텡스텐 램프를 제조사(필립스사 포함)에 계속해서 생산해 달라는 로비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텡스텐 램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빛’이 LED가 대체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관련 법안이 강력하게 수정되어 이제는 극장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이 법안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기초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무대예술성을 위해 조명의 강약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방해받으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극장을 직접 소유,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전체 극장 시설에서 무대 조명이 차지하는 전기 소모량은 5%를 넘지 않는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법안의 강제로 인해 극장전기 사용의 효율성보다 예술적 표현이나 노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면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카번즈 전 런던극장협회(SOLT) 회장

하지만 조명디자이너 콘스타블은 “환경과 전기(에너지) 효율성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위 호스>나 <레 미제라블> 같은 공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조명기기로는 디자이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창조해 낼 수 없을 것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무대에 불을 밝히지 않겠다(Going Dark)”며 번즈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런던 웨스트엔드의 2부작 연극 <해리포터(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의 조명을 맡았던 네일 오스틴(Neil Austin) 또한 “신규 법안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모든 극장들이 참고에 보관 중인 엄청난 양의 기존 조명기 목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이를 한순간에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보다는 수십 년간 대를 이어가

며 고쳐 재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이 더 녹색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가깝다”고 항변한다.

급기야 영국 조명 디자이너 연합은 ‘무대 조명 살리기(Save Stage Lighting) 운동 본부’를 설립하고 정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접촉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달하고 인접한 음향디자이너들과 연합하여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위원회의 대변인은 현재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투표를 통해 법안의 통과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 연합국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영국에서도 법률이 강제력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나 영향력 있는 무대 조명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유럽에 근거하고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영국의 극장 산업 역시 이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지역의 작은 극장들은 규모가 큰 극장들이 조명기기의 신규 도입이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대부분 그들의 것을 물려받아 작품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조명기기들이 더 이상 법적으로 유럽에서 생산, 유통의 길이 막힌다면 극장에서 언제까지 있는 부품을 고쳐 재활용할 수 있던 말인가.

극장뿐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을 생각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는 것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공개념이다. 과연 이번 유럽의 법안은 “극장 환경에서 조명디자이너에 의해 창조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공연산업을 저해하는 제안일까? 법을 만드는 기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 제정되는 단순함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서구사회에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언젠가 우리 공연계에서도 다가올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